

# 자기소개서

지원자 성명	박재현	수험번호	22
지원학과	웹프로그래밍과	연락처	010-

2021년 11월 9일

지원자 박 재 현

한국디지털미디어고등학교장 귀하

## <자기소개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는 지원자 본인이 작성하여야 하고, 사실에 근거하여 정직하게 지원자 자신의 능력이나 특성, 경험 등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 자기소개서를 대리 작성, 허위작성 혹은 표절 시 입학 취소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활동 외의 사교육 유발요인이 큰 외부활동(외부대회, 해외 어학 연수, 해외체험학습, 해외봉사활동 등)이나 지원자 성명, 출신 중학교, 출신 지역 및 거주 지역명, 부모(친인척포함)의 실명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적 지위(직종명, 직업명, 직장명, 직위명 등)를 암시하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평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작성을 금지합니다.
- 글자 수는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항목에서 제시한 양식에 따라 작성합니다.
- 자기소개서는 PDF로 저장한 파일을 입학원서와 함께 온라인 접수합니다.  
※ 출력 후 스캔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이나 MS워드에서 바로 PDF로 저장한 파일을 제출합니다.

## 1. 교과 활동 - 중학교 재학 중 교과 학습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을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중학교에 들어오고 나서 중학교는 초등학교랑 정말 다른 곳이라는 이런 중학교 분위기에 맞게 가정에서 추가 학습하여 마땅한 듯하였고, 정보를 찾아본 다음, 정부와의 연계로 한국 교육방송공사에서 만든 학습서 몇 개를 집어와 공부했다. 책마다 대표 문제 몇 개가 공개되어있었고 그것을 비교하여 결정했다. 그러나 국어와 영어만큼은 다른 학습 방법이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나도 체계적인 학습서 교육을 택하지 않았다. 그 두 가지의 경우는 말하거나, 듣거나, 쓰거나, 읽거나, 이해하는, 언어이다. 그래서 그 언어로 쓰인 말을 많이 접하되 교육에 쓰이는 용어 등을 따로 정리하기로 했다. 우수한 글 하면 바로 소설과 시 아니겠는가. 그 생각에 곧장 e-북 리더기를 세계문학 200권 묶음으로 구매했다. 읽기를 학습에 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감상문 작성과 같은 것은 생각조차 하지 못했지만, 꾸준히 문학을 읽고 어려운 단어와 구조를 하나씩 알아가며 복잡한 문장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 2. 교과 외 활동 - 중학교 재학 중 본인이 관심을 두고 노력했던 학교 내 활동을 쓰고,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초등학교 때부터 여러 가지 요리 실습 활동을 열심히 해오던 나로서 제과제빵 동아리를 만난 것은 행운이었다. 친구들 몇 명을 설득해 함께 제과제빵 동아리에 가입했고, 동아리 활동 때마다 그 시간의 최선을 다했다. 매번 만들어진 요리의 양이 넉넉하여 학교의 선생님들과 우리 가족과 즐겁게 나누어 먹을 수 있었고 이에 더욱 열심히 임했다. 가정에서도 사비로 여러 제과제빵 재료와 용구들을 사서 종종 요리했다. 2학년 때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으로 학교에 가는 것은 물론이고 동아리 실습을 할 수 없어지자 집에서 컴퓨터만으로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친구들을 설득해 IT(정보기술) 동아리에 갔다. 아무런 활동도 하지 못했어도 만족스러운 동아리였다. 3학년 들어서는 동아리 활동이 재개되었고, 학교 자치 활동에 관심이 생겨 학교 연간지 청성대를 만드는 기자단 동아리에 들어갔다. 기사를 직접 작성하는 것은 더 낮은 학년 학생들이 하기로 하고 모든 기사의 사진찍기를 맡았다.

## 3. 도덕, 인성 - 중학교 재학 중 나눔, 배려, 협력, 타인존중, 규칙 준수 등을 나타낼 수 있는 개인적인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우고 느낀 점을 기술하십시오. (띄어쓰기 포함 500자 이내)

1학년 10월 수련회 때 일이었다. 우리 방의 바닥에 압정을 떨구고 이쪽으로 달려오던 친구에게 조심하라고 했지만, 미처 잡기도 전에 그것을 밟고 말았고, 친구 발에는 깊이가 깊은 상처가 생겼다. 그 즉시, 아무리 표현해도 부족한 미안함을 거듭 전하면서, 선생님이 계신 1층까지 부축해서 데려갔다. 친구는 굉장히 침착했다. 친구는 아무런 화도 내지 않았고 선생님께도 떨어뜨린 압정 때문이라는 말을 꺼내지 않는 선의를 보였다. 지금도 그 친구를 보면 그 일을 가끔 떠올려 미안함과 고마움을 더 전하고는 한다. 그때 그 친구가 좋은 대응을 보였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 친구가 너무 착했던 것일까? 아니, 그 친구가 1학년 그때 다른 아이들보다 특히 더 착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런 침착함은 우리의 상호 존중이 없었으면 나올 수 없었다고 생각한다. 서로가 자신이 잘못했다는 생각을 더 먼저 하고 서로를 최대한으로 포용했기 때문에 이런 마음 따스한 일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이었다.